

# 성장 잠재력 무한한 스페인 출판

## 라틴아메리카 등 언어권 커 미래의 출판강국 떠올라

이희재

번역가

오는 10월에 열릴 프랑크푸르트 도서전시회의 올해 주제국가로 선정된 스페인. 정치경제적으로도 다른 서유럽국가에 비해 뒤쳐져 있지만 오는 92년의 바르셀로나 올림픽과 EC 통합을 계기로 새로운 도약을 꿈꾸는 스페인의 출판시장이 새삼 각국 출판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1990년 한해 동안 스페인에서 발행된 책은 4만2천 권 중 출판선진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5만 권 남짓임에 비추어볼 때 결코 만만치 않은 숫자다. 여기에서 브라질을 제외하곤 온통 스페인어권인 라틴아메리카를 고려해 놓으면 스페인은 가장 성장 잠재력이 높은 미래의 출판강국으로 떠오른다.

전통적으로 스페인의 출판을 선도해온 곳은 수도 마드리드. 그러나 최근 들어 스페인의 상공업 중심지인 바르셀로나에 점점 주도권을 빼앗기는 추세가 있다. 1989년 바르셀로나는 14,276종의 책을 발행하여 마드리드의 1만5천 권에는 채 못미쳤지만 학습 교육도서가 주종을 이룬 마드리드와는 달리 문학서적을 훨씬 많이 찍어냈다.

두 도시의 대립은 마드리드를 둘러싼 카스티야 지방과 바르셀로나를 둘러싼 카탈루냐 지방의 정치경제적 대립이기도 하다. 카스티야의 대지주와 귀족들이 주도해온 스페인 중앙정부의 농업우대정책에 공업지대인 카탈루냐는 늘 피해의식을 가져왔다. 이들은 자치권의 확대를 요구하면서 고유언어인 카탈루냐어를 공용어로 채택하려는 운동을 오래 전부터 벌여오고 있는데, 그 운동의 일환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카탈루냐어 책의 출판 붐이다.

카탈루냐어 출판을 고집하는 대표적인 출판사로 콜롬나가 있다. 이 출판사는 하이네, 도스토예프스키, 콘라드 같은 고급문학을 카탈루냐어로 소개할 목적으로 5년 전에 설립되었다. 그러나 독자들의 반응이 기대에 못미치자 콜롬나는 좀더 대중성 있는 책들을 내놓기 시작했다. 대신 스페인어 번역본이 나오기도 전에 카탈루냐어 번역판을 내는 등 한발 빠른 기획력을 바탕으로 나름대로의 개성을 쌓아나갔다. 또 추리소설, 여성도서, 아동도서, 만화 등 영역별로 발행사 이름을 달리하여 분야별 독자들에게 뚜렷한 인상을 심어놓는 작전이 주효했다. 현재 콜롬나는 한해 120여종의 책을 내는 대형 출판사로 성장했다.

그러나 스페인 출판의 주역은 역시 스페인

어로 찍어진 책들이다. 스페인의 가장 전통있는 출판사는 플라네타. 이 회사는 여느 대형출판사처럼 소설 분야에 역점을 둔다. 특히 권위를 자랑하는 '플라네타 문학상'을 통해 젊은 스페인 작가들로부터 꾸준히 양질의 작품을 공급받고 있다. 소설의 경우 보통 2만부부터 베스트셀러라고 일컫는데, 별다른 투자 없이 일단 만부만 넘으면 성공작으로 본다. 플라네타 문학상을 수상한 작품 중에는 백만부까지 팔려나간 것도 있다.

가장 빠른 성장을 보이는 출판사는 플라사이 하네스. 독일 베텔스만의 자회사다. 베텔스만은 회원수 140만명을 자랑하는 스페인 최대의 북클럽 '시르쿨로 데 렉토레스'를 운영하면서 스페인 출판계의 새로운 강자로 떠오르고 있다. 더블데이를 통해 미국 시장도 공략하고 있는 다국적 출판기업 베텔스만의 든든한 후원을 바탕으로 플라사는 번역소설과 사전 등의 대형 기획물에서 다른 출판사들을 압도하고 있다.

에디토리알 아나그라마는 양질의 번역서를 많이 내는 중견 출판사. 지난 68년 전 유럽을 휩쓴 학생운동의 주역들이 세운 출판사다. 프랑코 시대에는 정치서적을 중점적으로 냈지만 지금은 소설이 80% 이상을 차지한다. 투스케츠도 비슷한 성격의 출판사다. 투스케츠는 독일·프랑스·체코 등 비영어권 작가의 작품을 중점적으로 소개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스페인의 출판시장에서는 번역물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 1990년 스페인에서 발행된 책 중 26%가 번역서이며 그 중 49%가 영어권 책이다. 그러나 마르케스, 요사, 푸엔테스, 코르타사르 등 잘 알려진 기성작가들의 뒤를 이어 에두아르도 멘도사, 후안 마르세, 펠릭스 데 아수아, 후안 호세 밀라스, 알베르토 바스케스 피게로아 등 젊고 재능있는 스페인어권 작가들이 많이 출현하면서 상황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 이들의 작품은 스페인은 물론 미국·프랑스·독일 등지에 역수출되어 스페인의 문화적 자존심을 지켜주고 있다.

스페인 출판의 앞날은 밝다. 라틴아메리카의 방대한 스페인어 사용인구가 떠받치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독일이나 이탈리아의 출판사들이 장기적인 포석으로 스페인 출판시장에 적극적으로 뛰어들고 있다는 것으로도 설명된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스페인 국민들의 독서량에 비해 출판규모가 너무 비대해져 오히려

출판의 발전에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출판사의 경영이 압박을 받는 한편 매장에 전시될 기회를 원천봉쇄당하는 책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스페인의 출판인들은 무조건 책을 많이 찍어내는 것이 능사는 아니며, 독서문화의 뒷받침없는 외형상의 출판규모 신장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고 있다. 출판종수를 현재보다 줄이는 한편 양질의 독서인구를 늘이기 위해 아동 도서 교육에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는 자성의 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좋은 독자는 하루 아침에 생겨나지 않기 때문이다.

### 美 과학서의 베스트셀러들

스티븐 호킹은 「시간의 역사」 서문에서 "방정식 하나를 집어넣을 때마다 부수가 반으로 준다"는 과학서 출판계의 해묵은 격언을 인용하고 있다. 그러나 그는 아인슈타인의 E=mc<sup>2</sup> 하나를 집어넣었고, 부수가 줄기커녕 미국에서 100주 동안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혹자는 호킹의 책을 몇십 페이지 이상 읽은 사람은 드물 거라고 비판다. 그러나 호킹의 책을 편집한 밴텀의 편집인 피터 구자르디는 이런 책을 즐겨 읽는 독자들이 상당수 있다고 믿고 있다. 구자르디에 따르면 호킹의 성공은 이례적인 것이 아니다. "지난 2,30년간은 5년이나 10년 주기로 과학 분야에서 초베스트셀러가 나왔지만 최근 5년간은 거의 해마다 나오고 있다"는 것.

1984년 노턴은 지금은 고인이 된 물리학자 리처드 페인먼의 「농담 마시오, 페인먼 선생!」(Surely You're Joking, Mr. Feynman!)을 출판, 이듬해까지 베스트셀러 목록에 올랐다. 1987년 바이킹에서 나온 제임스 클레익의 「혼돈」(Chaos)은 15판을 찍으면서 다음해 9월까지 베스트셀러 자리를 지켰다. 1989년 초 힐&왕에서 나온 존 앨런 폴로스의 「수학의 문맹」(Innumeracy)은 10만부 이상 팔렸다. 미국 고등교육의 퇴보를 우려한 앨런 블룸의 「미국 정신의 종말」과 시기적으로 맞아떨어지기도 했지만 과학적 무지에 대한 독자들의 개운찮은 심기를 정확히 짚었다. 1989년에는 옥스퍼드대에서 나온 로저 펜로즈의 「황제의 새로운 마음」(The Emperor's New Mind)이 성공을 거

두었다. 특히 이 책은 저자가 호킹과는 달리 일반 독자들의 거부감을 사기 안성맞춤인 난해한 방정식을 곳곳에 집어넣었음에도 많이 팔려 주목을 받았다.

이런 책들이 성공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페인먼·호킹·펜로즈는 당대의 가장 뛰어난 물리학자들이다. 클레익은 사회의 혼돈을 피부로 느끼는 범인들이 관심을 기울일 만한 '혼돈이론'이란 재미난 주제를 잡았다. 크노프는 혼돈이론을 한 단계 발전시킨 '복잡성이론'에 대한 책의 집필을 뉴욕타임스 과학기고가 조지 조슨에게 맡겼다.

과학서 출판이 타분야에 비해 유리한 점은 양서를 제대로 평가해주는 고급 독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것. 그들은 소설처럼 떠들썩하게 광고를 하지 않아도 양서를 찾아 서점을 순례한다. 우리나라에서도 「다윈 이후」(범양사출판부)라는 책이 번역되어 나온 바 있는 생물학자 스티븐 제이 굴드의 책을 내는 노턴의 에드윈 바버 부회장은 초베스트셀러보다 굴드의 독자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감동을 받는다. "굴드가 진화생물학에 관한 책을 쓰기 시작한 15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류의 책이 팔리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바버는 「잘한다, 브론토사우루스」(Bully for Brontosaurus), 「놀라운 생명」(Wonderful Life)을 예로 든다.

하버드대에서는 오는 9월 앨런 라이트먼의 「태고의 빛」(Ancient Light)이 나온다. 이 책은 호킹의 「시간의 역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독자들을 위해 씌어졌다. 호킹 책도 새로 나온다. 밴텀에서는 10월에 호킹에 관한 다큐멘터리 필름을 이용,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An Illustrated Companion to A Brief History of Time)를 펴낸다. 또 신경학자 윌리엄 깬의 「샤만은 어떻게 달을 훔쳤는가」(How the Shaman Stole the Moon)라는 재미있는 제목의 책도 10월에 선을 보인다. 과학자의 선조는 샤만이었던다는 논지를 설득력있게 펴나간 책이다.

최근의 과학 출판에서 눈길을 끄는 것은 워니니니해도 환경관련서다. '지구엔 살아있는 하나의 유기체'라는 참신한 가설을 내세운 제임스 러블록의 「가이아」(Gaia)는 국내에도 번역 소개되었지만, 올가을 하모니에서는 그 후속편이라 할 「가이아 치유법」(Healing Gaia)이 나온다. 아이작 아시모프는 SF를 잠시 접어

두고 환경파괴를 생생히 묘사한 「성난 지구」(Angry Earth)를 토어社에서 펴낼 예정.

### 작아지는 일본의 미술서

단순한 감상의 차원에 머물지 않고 직접 그림을 그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한 새로운 잡지가 등장해 일본의 미술 출판계에 신선한 바람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문제의 잡지는 同朋社出版에서 발행되는 「DO ART」. '회화에 도전!'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이 잡지의 창간사에는 잡지의 성격을 가늠케 하는 이런 대목이 있다. "화구, 기법, 주제 등에 관한 온갖 정보를 제공하는 실천적인 가이드북", "실력있는 화가들이, 본 것을 정확히 그리는 방법에서 구도를 잡는 방법까지 대단히 이용 가치가 높은 기술을 전수한다."

편집장에 따르면 "매호 기초의 기초부터 자상하게 해설하기 때문에 의욕에 넘치는 독자들은 좀 불만스러울지 모르지만, 중급자를 위해 유명한 화가들의 그림 그리는 방법을 분석하는 등 다양한 독자의 기대에 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한다.

이 출판사에서는 작년 봄에 주간 「그레이트 아티스트」를 창간한 바 있다. 「DO ART」도 매주 화요일 발매되는 주간지이지만 전자가 감상용인 데 반해 이것은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실제로 그림을 그리려 하는 독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데 차이가 있다.

현재의 독자구성을 보면 남녀가 거의 반반이지만 여성은 20대가 압도적으로 많고 남성은 60대 이상이 많아 재미있는 남녀별 차이를 보여준다. 독자들의 공통된 반응은 "도움이 많이 된다"는 것. 매호 어디서부터나 읽을 수 있도록 편집되는 이 주간지는 모았다가 바인더로 철해두면 일종의 그림그리기 백과사전으로도 쓸 수 있도록 약 2년간 96호분으로 완결하는 새로운 시도를 한다는 것이어서 독학으로 그림을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한편 감상용 미술서적으로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일본경제신문사에서 올초부터 간행되기 시작한 「日經 포켓갤러리」다. 이 미술전집은 젊은이를 중심으로 폭넓은 독자층을 노리고 있다. 우선 25권을 예정하고 있는데 '손바닥 가득 미술관!'이란 캐치프레이즈에 걸맞게 B6 변형판(16×13cm)에 칼라 도판 40

점을 수록했다. 정가는 1000엔으로 미술서적으로선 상당히 저렴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사진집이 그 대표적인 예지만 종래의 전집과는 달리 미술 관련 서적의 판형이 소형화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된다. 먼저 소형화함으로써 정가를 내릴 수 있다는 측면이 있다. 미술관련 서적은 비싸기 때문에 사고 싶어도 엄두를 못내는 독자들이 의외로 많으니 이런 잠재적 독자를 적극 개발하자는 것이다.

또 비좁은 공간에서 살아가는 도시민들에겐 부피가 큰 책은 적잖은 부담이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소형 전집이면 가벼운 마음으로 구입할 수 있다. 筑摩書房에서 출판된 문고 크기의 「지쿠마 일본문학전집」같이 소형화된 전집이면 주머니 같은 데 넣어 갖고 다니면서 아무데서나 쉽게 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 「日經 포켓갤러리」는 이것을 미술전집에 과감히 적용한 것이다.

이 전집은 현대 일본 화가 시리즈와 서양 근대 화가 시리즈로 대별되는데, 가장 큰 특징은 화가 자신이 수록작품을 선택함과 아울러 그림을 그린 동기와 거기 얽힌 추억 등을 그림에 곁들임으로써 독자들이 작품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외국 화가들의 경우는 편지 등의 자료에서 화가 자신의 말을 실고 있다.

그밖에 미술전집은 아니지만 岩波書店에서 나온 「일본 미술의 흐름」(전7권)은 원시시대부터 현대의 컴퓨터 미술에 이르기까지 일본 미술을 동서문명사의 큰 틀 속에서 꿰뚫어보는 미술의 정신사라 할 수 있는 책이다. 이같이 시대의 조류를 읽어내는 앞선 출판인들의 기획을 미술이 유별난 예술가들만의 것이 아니라 보통 사람들의 소박한 문화적 실천과도 연결된다는 건강한 인식을 많은 이들에게 심어주고 있다.

아직도  
대지작업을 손수 하시나요?  
저희 편집부에 맡겨주시면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원고만 주시고  
책을 받아보세요!

맥킨토시로  
대지작업 없는  
신속한  
전자출판 시스템을  
활용하세요



입력·편집·제판·인쇄를  
한곳에서 처리

#### 시설내용

##### 편집부

- ▶ 전자출판 시스템  
맥킨토시 진품목 설치
- ▶ 유능한 편집인

##### 제판부

- ▶ 단색스캐너 설치
- ▶ 원색제판의 모든 것 해결

##### 인쇄부

- ▶ Miller 2칼라 2대
- ▶ Rolend 4칼라 1대

##### 윤전부

- ▶ 4×6전자 8색기 2대

##### 코팅부

- ▶ 전자동 라미네이팅(무광, 유광)
- ▶ 전자동 U,V 코팅



**삼정프로세스**  
Samjung Process Co.

서울특별시 용산구 원효로1가 46-17  
전화 704-8384~5 팩스 717-7311